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시용전, 《불온한 사랑》
SHIH Yung Chun, *Forbidden Love*



시용전, 《불온한 사랑》(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전시작가 : 시용전(SHIIH Yung Chun, b. 1978, 대만)
전시제목 : 불온한 사랑(Forbidden Love)
전시일정 : 2025 년 10 월 16 일(목) – 12 월 6 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1F, 3F, 4F
전시작품 : 34점(평면 24점, 입체 9점, 영상 1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OOJWALz2YZcLGHZFafrrS6lmbUgDxT2?usp=drive_link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3
	3. 작품소개	-----	3-4
	4. 전시전경	-----	5
	5. 작가소개	-----	6
	6. 작품평론	-----	6-10
	7. 작가약력	-----	11-12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목)부터 12월 6일(토)까지 **시용권**(SHIH Yung Chun, b. 1978, 대만) 개인전 《**불온한 사랑**》을 개최한다. 시용권이 한국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으로,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아우르는 작가의 신작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3개 층에 다채롭게 펼쳐 놓는다. 전시에서는 인형극 무대의 형태를 띤 입체 연작¹, 각각의 무대 속 장면을 소재로 한 회화 연작, 그리고 전체의 서사를 영화적 형식으로 재구성한 영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일련의 출품작은 호텔 룸과 복도, 거실, 주방, 바, 공연 무대, 도로 등 총 7개의 서로 다른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상의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소재 삼는다. 작가 특유의 상상력에 의하여 환상적으로 연출된 장면들은 전시공간을 모태 삼아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을 형성한다.

2. 전시주제

《불온한 사랑》 -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온 사물들 간 관계에 관한 상상

대만의 경제 부흥기, 군부대 인근의 마을에서 자란 시용권은 가파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빠르게 버려지고, 새롭게 대체되는 것들의 한시적인 가치를 연민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주로 자신의 유년기인 1980년대의 상품 패키지와 신문, 잡지 등에서 발견한 이미지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작업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장난감은 시용권의 유년기 기억을 소환하는 대상인 동시에, 각자가 비로되 시대와 장소의 흔적을 은연 중 내비치고 서로 간 복잡다단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작품세계의 서사를 무한히 확장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시용권의 〈토이 세트 Toy Set〉(2025) 연작은 인형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입체 작품으로, 주로 탁상형 규모의 디오라마(diorama) 형태를 띤다. 각각의 무대는 작가가 수집한 빈티지 상품 패키지와 인형, 장난감, 유아용 클레이를 재료 삼아 구성된다. 일련의 무대는 7개의 다양한 장소를 묘사하는데, 그로부터 발췌된 장면들이 회화 연작 및 영상 작품으로 재창조되며 각각의 작품 간 연결성을 드러낸다. 무대 안에 배치된 24개의 인형들은 서사를 전개하는 등장인물로서, 여러 매체로 변주되는 장면 가운데 거듭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명인 《불온한 사랑》은 저마다 다른 시대와 환경으로부터 비로되 사물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새롭게 형성하는 낯선 관계에 대한 은유이다. 동시에, 7개의 무대가 상징하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의 사랑, 즉 모녀 간의 유대, 연인 간의 애정, 친구 사이의 우정, 꿈에 대한 열정의 이면에 도사리는 배신과 경쟁, 욕망 등 불온한 감정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¹ 본 전시의 서사를 구축하는 요소이자 회화 및 영상 작품의 소재가 되는 7개의 인형극 무대와 더불어, 전시 구상의 출발점이 된 1개의 상징적인 무대, 그리고 작가가 수집한 깡통 및 종이 상자로 구성된 1개의 설치 작품까지 총 9점의 입체 연작이 선보인다.

장난감으로 만든 무대 위의 부조리극 - 사회문화적 현실의 축소 모형

시용권이 장난감을 작품세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초기에는 주로 회화의 화면 위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상황 내에 장난감들을 배치하는 방법론을 취했다. 이후인 2022년부터 선보인 <토이 패키징 Toy Packaging> 연작에서 시용권은 자신이 상상한 장면들을 비닐 또는 상자 패키지 안에 압축하여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로써 수집된 장난감들은 장면의 서사를 보다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동시에, 대량생산된 상품으로서의 본질을 암시하는 역설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 나아가, 가장 최근의 <토이 세트> 연작은 장난감 패키지의 형태를 확장하여 인형극 무대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장난감들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보다 강조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입체적인 무대 장치 속 다양한 인형과 사물들을 활용해 일종의 부조리극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행위를 통하여, 작가는 사회문화적 현실의 거대한 질서를 스스로의 미시적 우주 내에 재배치한다. 일련의 무대는 선전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회화 연작과 시간성을 지닌 영상의 형식으로 재구성된다. 그러한 작업 과정 가운데, 정지된 사물의 형태 안에 내재하여 있던 실제의 역사는 작품세계 내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허구의 이야기로 탈바꿈한다. 시용권은 작품을 통하여 단일하고 선형적인 서사를 제시하기보다, 보는 이 각자의 서로 다른 인식에 기반하여 주제의식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성찰하기를 제안한다.

3.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SHIH Yung Ch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대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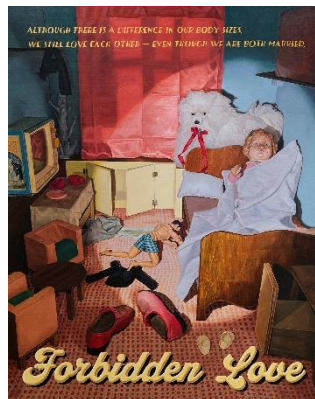
시용권 SHIH Yung Chun

<호텔 룸 토이 세트> Hotel Room Toy Set

2025

나무 패널에 아크릴릭 물감, 앤티크 토이, 패브릭,
철제 상자, 세라믹, 라이트 클레이

92 x 110 x 83 (h) cm



시용권 SHIH Yung Chun

<불온한 사랑> Forbidden Love

2025

캔버스에 유채

227 x 18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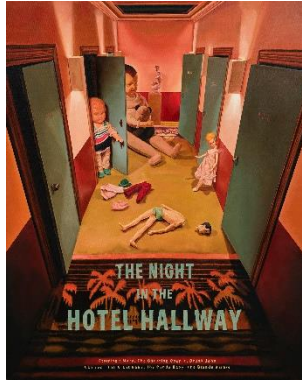
시용전 SHIH Yung Chun

〈호텔 복도 토이 세트〉 *Hotel Hallway Toy Set*

2025

나무 패널에 아크릴릭 물감, 앤티크 토이, 패브릭,
철제 상자, 세라믹, 라이트 클레이

89 x 184 x 75 (h) cm



시용전 SHIH Yung Chun

〈호텔 복도의 밤〉 *The Night in the Hotel Hallway*

2025

캔버스에 유채

162 x 1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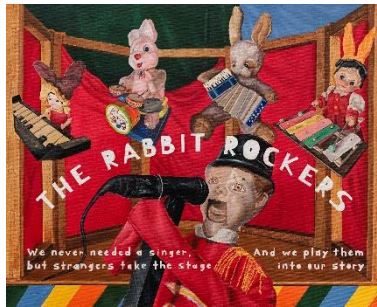
시용전 SHIH Yung Chun

〈토끼 밴드 토이 세트〉 *Rabbit Band Toy Set*

2025

나무 패널에 아크릴릭 물감, 앤티크 토이, 패브릭,
철제 상자, 라이트 클레이

82 x 92 x 95 (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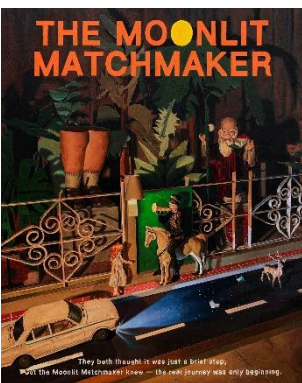
시용전 SHIH Yung Chun

〈토끼 록 밴드〉 *The Rabbit Rockers*

2025

캔버스에 유채

72.5 x 91 cm



시용전 SHIH Yung Chun

〈달밤의 중매자〉 *The Moonlit Matchmaker*

2025

캔버스에 유채

162 x 130 cm



시용전 SHIH Yung Chun

〈라스트 콜〉 *LAST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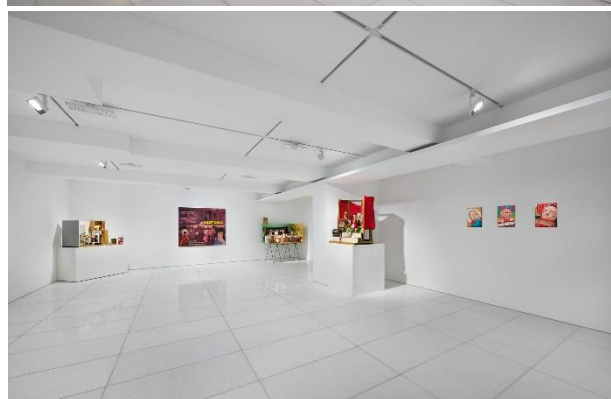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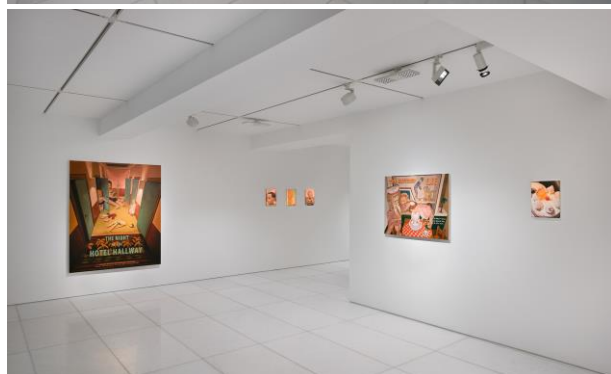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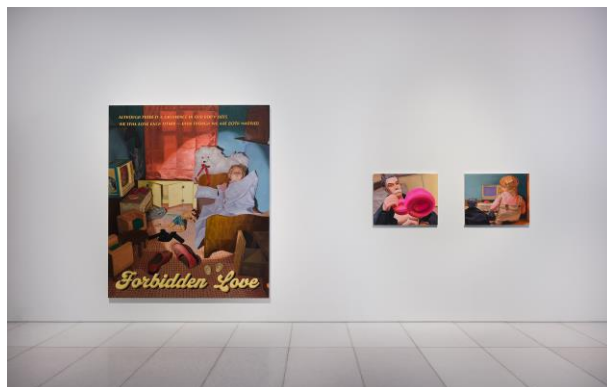
2025

캔버스에 유채

130 x 162 cm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용전, 《불온한 사랑》(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5. 작가소개



시용준은 1978 년 대만에서 태어나 2003 년 국립대만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중국과 대만, 한국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화이트 래빗 갤러리(시드니, 호주, 2025; 2024), 하이데 현대미술관(멜버른, 호주, 2024), 타이둥 미술관(타이둥, 대만, 2023), 룽 뮤지엄 웨스트번드(상하이, 중국, 2022), 신베이 아트센터(신베이, 대만, 2020), 금일미술관(중국, 베이징, 2012) 등이 개최한 단체전에 참여했다. 2009 년과 2011 년에 게이사이 대만 타이카이 어워드를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화이트 래빗 갤러리(호주), 룽 뮤지엄(중국), 대만국립미술관(대만), 아트뱅크(대만), 타이베이 국립역사박물관(대만)에 소장되어 있다.

6. 작품평론

현실의 변증법 – 시용준의 <토이 패키징>

천광이

파리 낭테르 대학교(파리 10대학) 현대미술사 박사
국립대만미술관 관장 | 국립대만예술대학교 미술대학 전임교수 및 학장

장난감인가, 작품인가?

시용준의 작품세계에 장난감이 등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최근의 연작 <토이 패키징 Toy Packaging>(2022-)에서 장난감과 작품의 구분은 보다 본격적으로 모호해진다. 두 개념의 경계에 관한 질문은 오래도록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파블로 피카소의 아들은 피카소가 만든 '장난감'이 작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처럼 답하였다. "분명 장난감으로서 출발한 그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아이디어란 언제나 가볍게 시작되어, 점차 강한 힘을 얻는 법입니다. 때로는 본연의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장난감'은 피카소의 종이 조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미술사가들이 그의 가장 급진적인 창작 중 하나로 평가하는 작품이다. 다양한 이론가들 또한 장난감이 지닌 마법적 힘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1853년 『문학세계 Die literarische Welt』에 실린 글에서 샤를 보들레르는 "장난감은 유년기의 가장 이른 예술적 영감이자 최초의 예술적 실천"이라고 썼다. 장난감은 본래 '놀이'의 도구이기도 하다. 에른스트 고프리치는 「놀이 목마에 관한 명상 Meditations on a Hobby Horse」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누군가 나무 막대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놀이일까, 또는 일종의 주술적 행위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놀이하는 이의 제약 없는 상상력은 장난감에 생명과 활력, 그리고 무한한 마법성을 부여한다. 놀이의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 '일상 혹은 개인의 신화'를 구축하도록 하는 기제이다.



Fig. 1
〈일상 규칙.Q - 실내용 풋볼 테이블〉
Daily Rules.Q - In-door football table
 2012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 x 162 cm



Fig. 2
〈토이 패키징.B - 쉬운 코 성형〉
Toy Packaging.B - Nose Job Made Easy
 2022
 나무에 아크릴릭, 클레이, 패브릭
 63 x 47.5 x 15 cm



Fig. 2-1
〈얼굴형에 어울리는 코 맞추기〉
Match Nose Style to Your Face Shape
 2022
 캔버스에 유채
 91 x 117 cm

장난감에 대한 시용전의 특별한 애정은 2012년도 개인전 《솜 오페라 *Soap Opera*》의 출품작인 〈일상 규칙.Q - 실내용 풋볼 테이블 *Daily Rules.Q - In-door Football Table*〉(2012)Fig. 1에서 일찍이 드러난다. 평론가 양자후이(楊家輝)는 작가가 2013년 홍콩 레지던시에 머물던 당시의 일화를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다. 작업에 아무 진전도 없이 한가로이 도시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날, 시용전은 우연히 들른 성완(上環)의 한 장난감 가게에서 한 무더기 빈티지 장난감들을 수집하게 되었다. 한동안 장난감에 관한 탐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장난감을 주제로 한 전시를 구상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2015년의 개인전 《플레이 매뉴얼스 *Play Manuals*》를 통하여 실현되었다. 작가가 2022년부터 지속해온 연작 〈토이 패키징〉은 주로 상자나 비닐에 담긴 채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장난감의 포장 패키지를 모방 및 재창조한다. 〈토이 패키징.B - 쉬운 코 성형 *Toy Packaging.B - Nose Job Made Easy*〉(2022) Fig. 2, 〈토이 패키징.A - 장애물 훈련 *Toy Packaging.A - Obstacle Training*〉(2022) Fig. 3, 〈토이 패키징.C - 거인을 찾아서 *Toy Packaging.C - Searching for the Giant*〉(2022)Fig. 4, 〈불 구경 *Fire Appreciation*〉(2023)Fig. 5 등이 그 사례이다. 향수를 품은 패키지들, 즉 영어 홍보 문구가 인쇄된 판지—실제로는 나무 패널에 손으로 그린 것—와 플라스틱 비닐 너머로 어렵פות이 드러나는 매혹적인 장난감 부품들은 그의 어린 시절 기억을 소환하는 요소들이다. 초기에 시용전은 자신이 수집한 장난감—레디메이드이든 혹은 모조품이든—을 자신이 상상한 장면과 상황 속에 배치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최근의 〈토이 패키징〉에서 작가는 연출된 장면과 상황을 장난감 패키지의 형태로 압축 및 포장한다. 이는 마르셀 뒤샹이 1936년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의 〈여행 가방 속 상자 *La Boîte-en-valise*〉에 담아낸 사례를 떠올리도록 하는 동시에, 장난감과 작품의 경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카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응답을 제시하는 면모이다.



Fig. 3
 <토이 패키징.A – 장애물 훈련>
Toy Packaging.A –Obstacle Training
 2022
 단채널 비디오, 컬러
 02'16"



Fig. 3-1
 <장애물 훈련>
Obstacle Training
 2022
 캔버스에 유채
 130 x 162 cm



Fig. 4
 <토이 패키징.C – 거인을 찾아서>
Toy Packaging.C – Searching for the Giant
 2022
 나무에 아크릴릭, FRP 인형, 패브릭
 126 x 103.5 x 27 cm



Fig. 5
 <불 구경>
Fire Appreciation
 2023
 캔버스에 유채
 91 x 117 cm

잔혹한 놀이

장난감은 아마도 그 무엇보다 모순적인 사물일 것이다. 실용과 비실용,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끊임없이 오간다는 점에서 말이다. 장난감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일상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유자의 사고를 일깨우는 데 있다. 장난감은 필수품이 아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그것은 결코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데, 장난감의 생산이 대개 어른들이 구축한 거대한 산업 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시용권이 장난감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장난감 패키지들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측정용 자와 일곱 개의 서로 다른 코가 들어 있어 기호에 따라 코를 바꾸어 가며 '황금비율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성형 선물상자 <토이 패키징.B – 쉬운 코 성형>과 기이한 세부 묘사가 가득한 회화 <얼굴형에 어울리는 코 맞추기 *Match Nose Style to Your Face Shape*>(2022)Fig. 2-1는 터무니 없는 장면 속 한 줄기 섬뜩한 정서를 자아낸다.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현된 <토이 패키징.A – 장애물 훈련>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인형들 가운데 끝내 담장을 넘지 못하는 '황색 피부'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일견 동기부여적이지만 실상 난처하고 불편한 서사의 전개는 보는 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Fig. 3-1 <토이 패키징.C – 거인을 찾아서>에 드러나는 작은 인물들과 거대한 개 사이의 불균형은 모호하고 불가해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마치 방화광을 위하여 제작된 듯한 작품 <불 구경>은 주제 자체가 이미 도덕적 경계에 대한 시험과도 같다. 다소 투박한 형태와 극명한 대비의 색채, 비논리적 구성이 대상 간 불일치와 기이한 분위기를 강화한다. 저마다의 화면은 오래된 잡지에서 수집한 출처 불명의 사진들이 창작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낸다.

사실, 미술의 영역에서 '장난감'과 '놀이'는 그다지 낯선 소재가 아니다. 14세기 이후의 가족 초상화에서는 아이들이 인형과 목마 등 장난감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 흔히 발견된다. 피터르 브뤼헬의 유명한 작품 <아이들의 놀이 *Children's Games*>(1560)에는 무려 91가지의 장난감과 그에 대응하는 놀이가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제프 쿤스의 화려하고 반짝이는 색채의 풍선 장난감들은 미술계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시용권 작품의 분위기는 오히려 제이크와 디노스 채프먼 형제가 1999부터 2000년까지 제작한 뒤 2008년에 재발표한 <지옥 Hell> 및 <불지옥 Fucking Hell>과 더욱 닮았다. 채프먼 형제는 6만 개의 장난감 병정을 사들인 뒤 2년에 걸쳐 자르고, 변형하고, 또 다시 조립했다. 정교함의 미학으로 점철된 해당 작업은 첫눈에 나치의 끔찍한 학살을 연상시키지만,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제작된 장난감 병사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해석을 주저하게끔 만든다. 그 잔혹한 장난감들은 독해의 난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매혹적인 조형 요소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폴 매카시가 1970년도부터 작업실에서 촬영한 영상 작업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다. 매카시는 산타클로스, 요리사, 화가 또는 다른 일상적인 인물을 인형 같은 모습으로 재해석하여 분장한 뒤에 무질서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련의 장면들은 회화와 퍼포먼스, 영상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일상적인 미국 문화에 내재하여 있는 비정상성과 왜곡성을 극대화하여 드러낸다. 시용권의 '장난감'과 '놀이' 역시 모순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노골적으로 잔혹하거나 가학적이지는 않지만, 단언컨대 천진무구하지도 않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특유의 작업 방식은 그의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더욱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만든다.

우아한 시체, 페티시즘, 그리고 미장아빌

시용권이 초현실주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그의 방법론은 분명 초현실주의자들과 상통하는 지점이 많다. 첫째로 초현실주의자들은 집단적 놀이를 즐겼는데, '우아한 시체(Cadavre exquis)'라는 이름의 게임이 그중 하나다. 참가자들이 각자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서 가린 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놀이로, 모든 사람이 순서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전체의 결과물이 드러나게 된다. 1920년대 예술계에서 유행한 해당 게임이 지닌 우연성의 요소와 콜라주 개념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작업 방식에 신속하게 채택되었다.

둘째로,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특정한 '페티시즘'이 있다. 이는 일상 속 평범한 사물이나 재료를 예술적 대상으로 변모시키는 물신적 태도로부터 발견된다. 앙드레 브르통은 1924년의 선언문에서 마네킹이 초현실주의적 경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적합한 사물 가운데 하나라고 썼다. 이후 마네킹과 밀랍 및 플라스틱 소재의 인형은 예술가들의 주요한 표현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한스 벨머의 <인형 La Poupée>(1933-34)에서 그러한 면모가 특히 두드러진다. 해당 작품의 영감은 유년기 어머니에게 장난감이 들어 있는 소포를 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벨머에 따르면 "경이로운 상자의 꿈결 같은 잔해들 가운데, 사지가 분리된 인형들과 형언하기 어려운 파편들이 뒤섞여 있었다." 브르통은 1936년의 전시 <초현실주의 오브제 Exposition Surréaliste d'Objets>의 보도자료에서 초현실주의 오브제로 여겨지는 사물들을 열거했다. 자연물, 광물, 식물, 동물, 조각으로 변용된 자연물, 재난에 의해 변형된 사물, 레디메이드

오브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종교적 도구와 가면과 같은 원시적 사물들, 수학적 오브제 등이다. 이상의 사물들은 브르통의 작업실 내 '호기심의 방'에 진열되었으며 이내 전시의 형태로 확장되었다. 뒤샹이 1938년의 《국제 초현실주의 *Exposition Internationale du Surréalisme*》전에서 구현한 전시장의 미장센은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설치미술의 전신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미장아빔(Mise en abyme)' 기법이 있다. 이는 액자식 구성과 같은 자기반영적 구조를 가리키며,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림 속 그림'처럼 반복적인 모티프의 재현을 통하여 구현된다.

시용권의 작업 과정은 유희적이고 우연적인 콜라주에서 출발하여 일상적 사물을 집요하게 수집하는 행위로 나아간다. 그는 다양한 사물들을 변형하거나, 탈바꿈시키거나, 혹은 단순히 의도적으로 연출된 전시 공간 내에서 재배치한다. 예로써 2014년의 〈정교한 빈티지 상점 프로젝트 *Delicate Vintage Shop Project*〉는 '호기심의 방'을 연상시키는 규모를 갖추었으며, 고대의 진기한 수집실처럼 시적인 직관과 이성적 지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구현되었다. 그곳에 놓인 '연극적 소품'들은 꿈과 욕망의 구체적 형상화인 동시에, 보는 이의 자율적 해석의 가능성 또한 열어 둔다. 반면 최근의 〈토이 패키징〉은 보다 의도적인 서사 구조를 향하여 전개된다. 시용권은 특히 미장아빔 기법을 자주 활용함으로써 이미지와 이미지, 매체와 매체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결과적으로 그가 직조한 서사는 닫힌 순환 구조, 즉 시작과 끝이 없는 자기 반복의 회로 속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서로 다른 차원의 현실을 열어젖히고 시간의 선형적 질서를 교란시킨다. 그리하여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은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한 최초의 원형이 장난감인지, 사진인지, 회화·애니메이션·영상인지, 혹은 장면 그 자체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중 무엇이든 임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한 지점에서 시용권의 창작 방식이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님이 명확해진다. 오히려 그는 현실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변증법에 관하여 치밀하게 탐구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말하듯 그는 보편적인 일상 속 인간 행동 양식에 은밀하게 내재된 측면들에 매료되어 왔다. 사실 그 행동 양식이란 대개 즉흥적이고, 반복적이며, 단순하다. 시용권은 그러한 기표들을 채집하여 함축적이고도 세밀한 차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기의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모방과 전유, 창작, 재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 멈추지 않는 동력이 마침내 현실 자체에 변화를 불러올 때까지.

7. 작가약력

시용전

1978년 대만 타이베이 출생

대만 타이베이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3 국립대만예술학교 서양화와 학사

주요 개인전

- 2025 불온한 사랑,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1 마스크 아래의 숨결, 하이아트 스페이스, 상하이, 중국
레쥬메, 이리 아츠, 타이베이, 대만
- 2019 프리-컨스트럭션, 하이브 현대미술 센터, 베이징, 중국
- 2016 패밀리 핸드크래프트, 라인 갤러리, 베이징, 중국
- 2015 플레이 매뉴얼즈, 아트 익스피리언스 갤러리, 홍콩
- 2013 자카, 피아오피아오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 2012 숨 오페라, 라인 갤러리, 베이징, 중국
- 2005 잊기 싫다면, 한 번 더 바라보라, 지층 284, 타이베이, 대만

주요 단체전

- 2024 XSWL, 화이트 래빗 갤러리, 시드니, 호주
메타모르포시스, 이리 아츠, 타이베이, 대만
태풍, 두부 콜렉티브, 대만
헤어 피스, 하이데 현대미술관, 멜버른, 호주
십 년 전, 이리 아츠, 타이베이, 대만
- 2023 피터팬 신드롬, 타이둥 미술관, 타이둥, 대만
글로벌 시티즌스: 아시아, 더 솽하우스 & 하이프아트, 홍콩
세상 속에 존재하기: 룽 뮤지엄 10주년 기념전, 룽 뮤지엄 웨스트번드, 상하이, 중국
- 2021 몇 가지: 아시아 신세대 예술가들의 이원 메커니즘, 하이브 현대미술 센터, 베이징, 중국
- 2020 화성인류학자에게, 신베이 아트센터, 신베이, 대만
- 2018 앤틱, 이리 아츠, 타이베이, 대만
청춘의 잔혹한 이야기, 이리 아츠, 타이베이, 대만
- 2013 클루즈 오브 아시아, 룽 뮤지엄 푸둥, 상하이, 중국
히든 트랙, 아트 익스피리언스 갤러리, 홍콩
- 2012 퓨처 패스, 진르미술관, 베이징, 중국
더 페이스 오브 타임, 피아오피아오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먼 것 중의 가까운 것: 젊은 예술가 단체전, 라인 갤러리, 베이징, 중국
2003 페인팅, 국립타이베이예술대학 사우스-노스 갤러리, 타이베이, 대만
프로세스, 오픈 현대미술센터, 타이베이, 대만
퍼스트 플로어 인도어, 오픈 현대미술센터, 타이베이, 대만

수상

2011 타이카이 어워드, 게이사이 대만 #3, 대만
2009 타이카이 어워드, 게이사이 대만 #1, 대만

소장

룽 뮤지엄, 중국
타이베이 국립역사박물관, 대만
대만국립미술관, 대만
슈안호 미술관, 대만
화이트 래빗 갤러리, 호주

ARARIO GALLERY SEOUL
SHIH Yung Chun
Forbidden Love



Installation view of SHIH Yung Chun: *Forbidden Lov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Artist	: SHIH Yung Chun (b. 1978, Taiwan)
Title	: <i>Forbidden Love</i>
Dates	: 16 Oct – 6 Dec 2025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1F, 3F, 4F
Artworks	: 34 Artworks in total (24 paintings, 9 three-dimensional works, 1 video)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J7y1xhuXm2lOqICHxm-738hyv1AyA0Cs?usp=drive_link	
[Inquiry] ARARIO GALLERY SEOUL E. info@arariogallery.com Miran PARK, Deputy Director E. miran.park@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14
	2. Exhibition Theme	-----	14-15
	3. Artworks	-----	15-16
	4. Installation View	-----	17
	5. Artist Introduction	-----	18
	6. Essay	-----	18-22
	7. Artist CV	-----	22-23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Forbidden Love***, a solo exhibition by **SHIH Yung Chun** (b. 1978, Taiwan), on view from October 16 (Thu) to December 6 (Sat), 2025. This marks the artist's first solo presentation in Korea, in which he unfolds his latest body of work—spanning diverse media and forms—across three floors of the gallery. The exhibition features three-dimensional miniature installations reminiscent of puppet-theater stages, paintings derived from each of these staged scenes, and a video work that reconstructs the overarching narrative in cinematic form. Together, these works revolve around seven distinct settings—a hotel room and hallway, a living room, kitchen, bar, stage, and road—where mysterious, fictional incidents take place. Through SHIH's unique imagination, these fantastically staged scenes interweave to create an expansive and immersive world rooted in the exhibition space itself.

2. Exhibition Theme

Forbidden Love – Imagining Relations Among Objects from Different Times and Spaces

Growing up in a village near a military base during Taiwan's period of economic revitalization, SHIH Yung Chun developed a deep sensitivity to the transient value of things quickly discarded and replaced amid rapid societal changes. His practice often begins with imagery drawn from 1980s product packaging, newspapers, and magazines—materials that recall the decade of his childhood. The toys that frequently appear in his recent works not only evoke his personal memories but also bear subtle traces of the times and places from which they originated. By intertwining these traces into intricate networks of relationships, SHIH endlessly expands the narrative universe of his practice.

SHIH's *Toy Set* (2025) series consists of three-dimensional works reminiscent of puppet-theater stages, presented mostly in tabletop-sized dioramas. Each stage is constructed from vintage product packaging, dolls, toys, and modeling clay for children, materials that evoke the artist's own childhood. The seven distinct stages depict different settings, from which scenes are excerpted and re-created in a series of paintings and a video work, revealing the interconnections among the various pieces. The 24 dolls placed within the miniature stages serve as characters who carry the narrative forward, repeatedly reappearing across media in different variations. The exhibition title, *Forbidden Love*, metaphorically refers to the unfamiliar relationships formed among objects originating from disparate times and environments as they coexist on a single stage. At the same time, it reveals the irony of "forbidden" emotions—such as betrayal, rivalry, desire, and despair—that lie dormant within the bonds portrayed across the seven scenes, including maternal care, romantic affection between lovers, friendship, and the pursuit of one's passion.

An Absurdist Play on a Stage of Toys – A Miniature Model of Sociocultural Reality

SHIH began incorporating toys into his artistic practice in 2015, initially arranging them within specific scenes depicted in his paintings. In his subsequent *Toy Packaging* series (2022–), he shifted toward compressing and re-packaging imagined

scenes inside vinyl or boxed packages. Through this transformation, the collected toys not only assumed a more active role in shaping the narrative, but also acquired a paradoxical quality that alludes to their mass-produced, commodified nature. In his most recent *Toy Set* series, SHIH further expands the notion of toy packaging into the form of a puppet-theater stage, thereby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among the toys themselves. The resulting miniature worlds unfold like absurdist plays, serving as condensed models of sociocultural reality.

By placing articulated dolls within miniature, three-dimensional stages, SHIH reconfigures the grand narratives of sociocultural reality within his own microcosmic universe. These puppet-theater sets are later reimagined as propaganda-style paintings and time-based cinematic anima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static past is revived as a dynamic and fictionalized history. Rather than presenting a single, linear storyline, SHIH invites viewers to interpret his works from multiple perspectives, encouraging layered reflections on their underlying themes.

3.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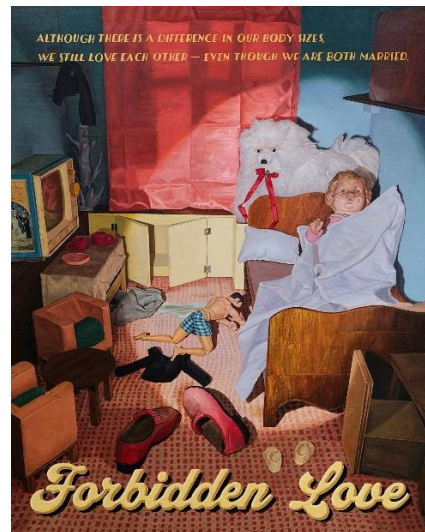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5. SHIH Yung Chu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Feature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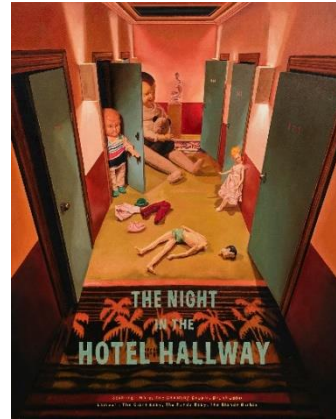
SHIH Yung Chun
Hotel Room Toy Set
2025
Acrylic paint on wood panel, antique toys, fabric,
metal boxes, and light clay
92 x 110 x 83 (h) cm



SHIH Yung Chun
Forbidden Love
2025
Oil on canvas
227 x 18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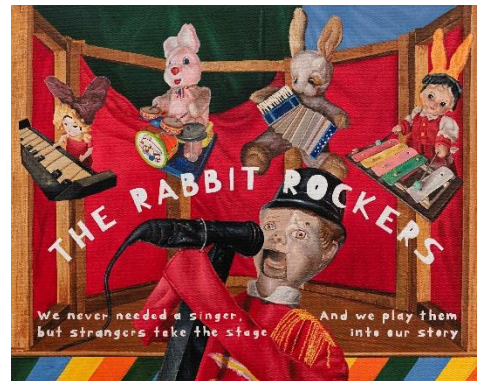
SHIH Yung Chun
Hotel Hallway Toy Set
 2025
 Acrylic paint on wood panel, antique toys, fabric,
 metal boxes, ceramics, and light clay
 89 x 184 x 75 (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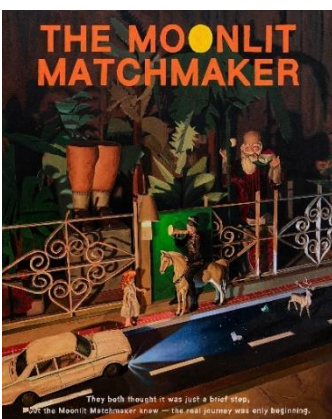
SHIH Yung Chun
The Night in the Hotel Hallway
 2025
 Oil on canvas
 162 x 13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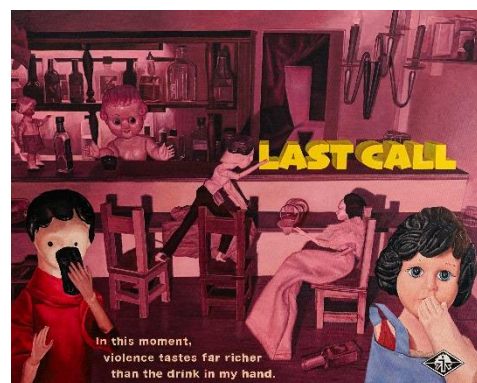
SHIH Yung Chun
Rabbit Band Toy Set
 2025
 Acrylic paint on wood panel, antique toys, fabric,
 metal boxes, and light clay
 82 x 92 x 95 (h) cm



SHIH Yung Chun
The Rabbit Rockers
 2025
 Oil on canvas
 72.5 x 9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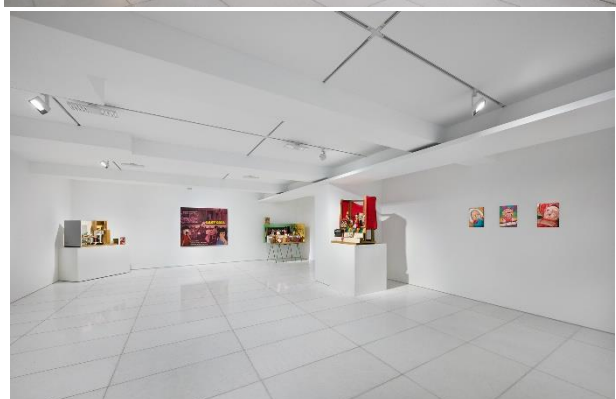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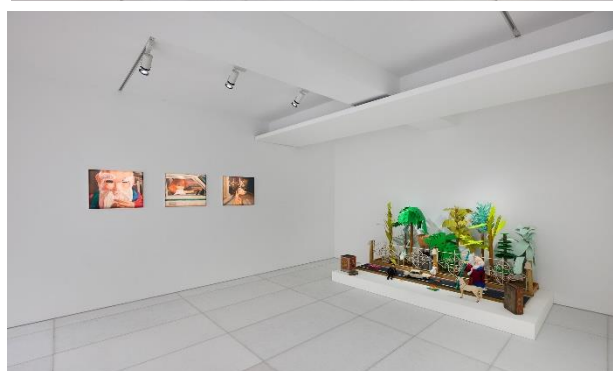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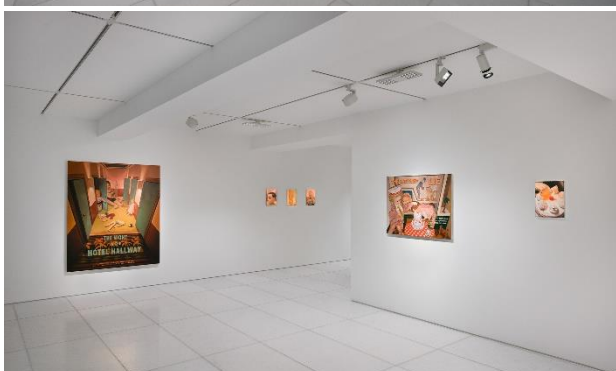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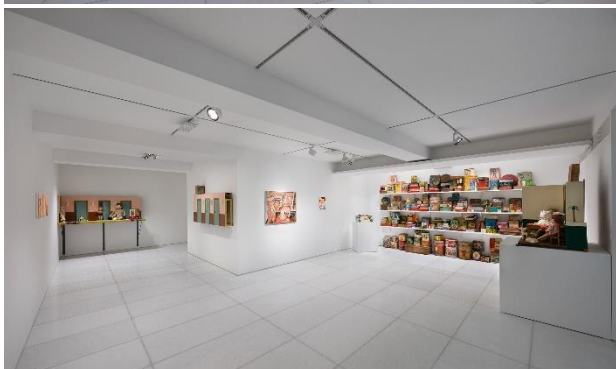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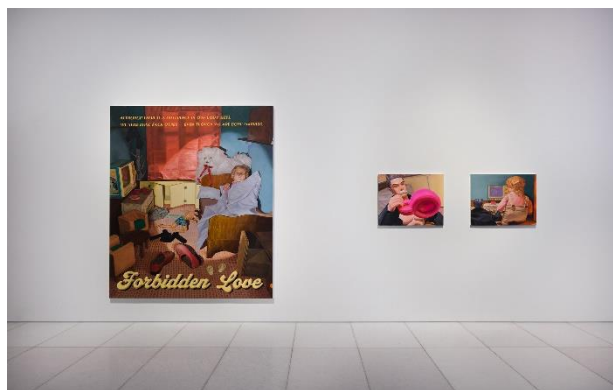
SHIH Yung Chun
The Moonlit Matchmaker
 2025
 Oil on canvas
 162 x 130 cm



SHIH Yung Chun
LAST CALL
 2025
 Oil on canvas
 130 x 162 cm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Installation view of *SHIH Yung Chun: Forbidden Lov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5. Artist Introduction



SHIH Yung Chun was born in 1978 in Taiwan and received his BFA in Western Painting from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in 2003. He has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across China, Taiwan, and Korea, and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held in notable institutions including White Rabbit Gallery (Sydney, Australia, 2025; 2024), Heide Museum of Modern Art (Melbourne, Australia, 2024), Taitung Art Museum (Taitung, Taiwan, 2023), Long Museum West Bund (Shanghai, China, 2022), New Taipei City Art Center (New Taipei, Taiwan, 2020), and Today Art Museum (Beijing, China, 2012), among others. He received the Taikai Prize at Geisai Taiwan #3 (2011) and Geisai Taiwan #1 (2009). His works are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the White Rabbit Gallery (Australia), Long Museum (China),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wan), Art Bank (Tai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wan).

6. Essay

The Dialectics of Reality – “Toy Packaging” of SHIH Yung Chun

CHEN Kuang-Yi

Ph.D. in Contemporary Art History, Université Paris Nanterre (Paris-X)

Director,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 Dean and Professor, College of Fine Arts,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Toys or Artworks?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toys have appeared in the works of SHIH Yung Chun, but it is in his new project *Toy Packaging* (2022-) that they are seriously confused with works of art. Actually, questions like this are often raised. For example, when Pablo Picasso's son was asked whether the ‘toys’ his father made were works of art, he said, "Of course they started out as toys, but they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ing...Ideas always start lightly, but then they become stronger and stronger. They sometimes spill over the edge and turn into something else." The toys, as he called them, are in fact Picasso's paper sculptures, which have been described by art historians as one of his most subversive creations. More than one theorist has spoken of the magic of toys: in an article in “Die literarische Welt” in 1853, Charles Baudelaire noted that, “Toys are the earliest artistic inspiration of childhood, the earliest artistic practice”. And toys are made to be played with. In “Meditations on a Hobby Horse”, Ernst H. Gombrich referred to the importance of playing, “When someone decides to ride proudly through the village on a wooden stick, is he doing so as a game or to invoke some kind of magic? And how can we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boundless imagination of the players gives life, vitality and infinite magic to the toys, while the games are the tricks that allow us to escape temporarily from reality and make up some kind of ‘every day or personal myth’.



Fig. 1
Daily Rules.Q - In-door Football Table
 2012
 Acrylic on canvas
 130 x 162 cm



Fig. 2
Toy Packaging.B - Nose Job Made Easy
 2022
 Clay, fabric, acrylic on wood
 63 x 47.5 x 15 cm



Fig. 2-1
Match Nose Style to Your Face Shape
 2022
 Oil on canvas
 91 x 117 cm

SHIH has a particular fondness for toys, as evidenced by the artwork *Daily Rules.Q - In-door Football Table* (2012)^{Fig. 1} in his 2012 exhibition, *Soap Opera*. Jacky YEUNG once vividly described SHIH's artist residency in Hong Kong in 2013, saying that SHIH was casually wandering around the city while not making any progress with his work. At some point, SHIH bought a bunch of vintage toys from a toy shop in Sheung Wan, spending some time snooping around, and eventually developed a plan for an exhibition using the toys he bought as a starting point, which ended up to be the exhibition *Play Manuals* (2015). In his new series *Toy Packaging*, which began in 2022, he mimicked and recreated the way toys were packaged commercially, such as in boxes and bags. It can be seen in *Toy Packaging.B - Nose Job Made Easy* (2022)^{Fig. 2}, *Toy Packaging.A - Obstacle Training* (2022)^{Fig. 3}, *Toy Packaging.C - Searching for the Giant* (2022)^{Fig. 4}, and *Fire Appreciation* (2023)^{Fig. 5}. The packaging is somewhat nostalgic, with the printed cardboard paper (actually hand-painted wooden boards) and the attractive toy components inside the plastic bags, evoking the childhood memories of the artist. While SHIH used to arrange the collected 'toys' (either ready-made or fake) in his staged scenes or scenarios, this time, he has done the opposite, packing the scenes into the set of *Toy Packaging*, which reminds us of Marcel Duchamp's *La Boîte-en-valise* in 1936, that packed up all his previous works in a suitcase, which answered the question regarding 'toys or artworks' in a completely opposite way compared to Picasso.



Fig. 3
Toy Packaging.A - Obstacle Training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02'16"



Fig. 3-1
Obstacle Training
 2022
 Oil on canvas
 130 x 162 cm



Fig. 4
Toy Packaging.C - Searching for the Giant
 2022
 FRP doll, fabric, acrylic on wood-case
 126 x 103.5 x 27 cm



Fig. 5
Fire Appreciation
 2023
 Oil on canvas
 91 x 117 cm

Cruel Games

Toy is arguably the most paradoxical object, oscillating between the practical/impractical and the art/non-art. If it has a function, the function wouldn't be to satisfy any practical need, but to enlighten the mind of its owner. It does not appear to be a necessity, but it plays an essential role in our everyday lives. Toys are also not exclusive to children; they are often made by the huge industry created by adults. We don't know what SHIH was trying to say with his toys, but his toy packaging is clearly unusual: a measuring ruler and seven different noses that allow the player to change noses to achieve a face of golden ratio, *Toy Packaging.B – Nose Job Made Easy*, and the painting, *Match Nose Style to Your Face Shape* (2022)^{Fig. 2-1}, saturated with bizarre details reveal a hint of horror through its own absurdity. Among the figures with different skin colors in *Toy Packaging.A – Obstacle Training*, one could find the 'yellow-skinned' character who fails to climb over the wall, along with a storyline that is meant to be inspirational but comes across as awkwardly animated and ultimately confusing.^{Fig. 3-1} The disproportion between the small people and the big dog in *Toy Packaging.C – Searching for the Giant* gives a sense of some obscure crisis. *Fire Appreciation*, which may have been designed for arsonists, challenges the moral boundaries in terms of its subject matter. The slightly clumsy shapes and somewhat sharp colors, as well as the irrational combination of elements, reinforce the ambience of contradiction and eccentricity, and subtly reveal the photographs of an unknown origin, allegedly collected from old magazine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ainting.

In fact, toys and games are not uncommon in artworks. We see children holding dolls, wooden horses and other toys in family portraits since the fourteenth century. Pieter Bruegel de Oude's famous work *Children's Games* (1560) listed 91 toys, as well as the games that went with them. Today, Jeff Koons' brightly colored, shiny inflatable toys are still sweeping the art world. But the tone of SHIH's work is closer to that of *Hell* and *Fucking Hell* by Jake and Dinos Chapman, made in 1999-2000 and in 2008 respectively. They bought 60,000 toy soldiers and spent two years cutting them up, transforming and reshaping them. While the first thing the viewers saw in this detail-oriented work was the chilling Nazi holocaust, the toy soldiers designed to be played with made the viewers hesitate towards such an interpretation, as these brutal 'toys' not only posed a difficulty of interpretation, but paradoxically presented a seductive appeal. Or Paul McCarthy's studio videos since 1970, in which he dressed up as doll-like Santa, chef, painter and other everyday-life characters, and then committed acts of disorder or violence. The unbearable content was presented through paintings, performances and videos, with the intention of highlighting the abnormality and perversions of routine American life. SHIH's toys and games are also full of contradictory elements, not as brutal or perverse, but certainly not innocent. His unique cross-media presentation adds an element of ambiguity and vagueness in our attempt of interpretations towards his work.

"Elegant Corpses", "Fetishism" and "Mise en abyme"

Although we do not know the extent of SHIH's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surrealism, his approach does have a lot to converse to the surrealists: firstly, the surrealists liked to play in groups, and when they gathered together, one of their most common games was called "cadavre exquis" (elegant corpse). Each participant wrote or drew on a piece of paper and then covered up the finished part before passing it on to the next player, so that the result was not revealed until all

participants had finished. The game became popular in the art scene in the 1920s and was quickly adopted by the surrealists as a technique for producing works because of its randomness and the concept of collage.

Secondly, the surrealists had a certain degree of fetishism, in which they transformed ordinary objects or materials from everyday life into artistic objects in a fetishistic way. In his 1924 manifesto, André Breton stated that mannequins were one of the objects most conducive to generating surrealist 'surprises'. Since then, mannequins and wax or plastic figures have become an important form of expression for artists. The most obvious example would be Hans Bellmer's *La Poupée* (1933-1934), which was inspired by the parcel containing his childhood toys sent to him by his mother, "among the dreamy remains of a surprise box, mixed with disarticulated dolls and indescribable remnants..." In a press release for the 1936 *Exposition Surréaliste d'Objets*, Breton listed a number of objects as the surrealist objects, including, natural objects, minerals, plants, animals, natural objects interpreted or incorporated into sculpture, disturbed objects (altered by disasters), ready-made objects, barbaric objects (American and Oceanic religious instruments and masks), mathematical objects, and so on. These objects later appeared as "cabinet of the curiosity" in Breton's studio and soon spread to the exhibition space. The "mise-en-scène" of the exhibition space, which Duchamp deployed for the 1938 exhibition, *Exposition Internationale du Surréalisme*, was considered the pioneer of installation art. Finally, there was a technique known as "mise en abyme" ('a play within a play'), such as the recurring subjects in the paintings within paintings in the works of Dali or René Magritte.

SHIH's creative process began with a playful and random collage, supplemented by a fetishistic collection of everyday objects that were morphed, transformed, or simply assembled in a deliberately constructed display environment. For example, his *Delicate Vintage Shop Project* in 2014, had the scale of a cabinet of the curiosity and, like those old cabinets, allowed for the coexistence of poetic intuition and rational knowledge, with 'props' acting as concrete embodiments of dreams and desires that can be given an open interpretation subjectively by the audience. However, in his new project, "Toy Packaging", SHIH moved towards a deliberate narrative structure, particularly shown through his preference for applying mise en abyme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images and between media, so that his narrative entered a kind of closed loop, a self-loop that has no beginning and no end, opening up different levels of reality and disrupting the chronology of tim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audience to distinguish whether there were toys first? Or photographs first? Or the paintings/animations/videos? Or the scene? Or can we randomly start from any one of these as the starting point? It is clear that SHIH's approach is not one of escapism, but rather of an obsession with the iterative dialectic between reality and reality. As he described himself, he is fascinated by the subtle aspects of human behaviors in everyday life, and these behaviors are often improvised, repetitive and simplistic. SHIH applied the signifiers to create concentrated and subtle differences that changed their signified, and repeated the process of imitation, appropriation, creation and representation until the uninterrupted operation changed the reality itself.

7. Artist CV

SHIH Yung Chun

Born in 1978, Taipei, Taiwan

Lives and works in Taipei, Taiwan

Education

2003 BFA Department of Western Fine Arts,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Taiwan

Solo Exhibitions

- 2025 *Forbidden Lov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1 *Breath under Masks*, HiArt Space, Shanghai, China
 Resume, Yiri Arts, Taipei, Taiwan
- 2019 *Pre-Construction*, Hiv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China
- 2016 *Family Handcraft*, Line Gallery, Beijing, China
- 2015 *Play Manuals*, Art Experience Gallery, Hong Kong
- 2013 *Zakka*, Piaopiao Gallery, Taipei, Taiwan
- 2012 *Soap Opera*, Line Gallery, Beijing, China
- 2005 *Reluctant to Forget, Then, Look at It One More Time*, Tzi-Chong 284, Taipei, Taiwan

Group Exhibitions

- 2024 XSWL, White Rabbit Gallery, Sydney, Australia
 Metamorphosis, Yiri Arts, Taipei, Taiwan
 Typhoon, Tofu Collective, Taiwan
 Hair Pieces, Heide Museum of Modern Art, Melbourne, Australia
 A Decade Ago, Yiri Arts, Taipei, Taiwan
- 2023 *Peter Pan Syndrome*, Taitung Art Museum, Taitung, Taiwan
 Global Citizens: Asia, The Soaphouse & HypeArt, Hong Kong
- 2022 *Being in the Worl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Long Museum*, Long Museum West Bund, Shanghai, China
- 2021 *A Couple of: The Dual-mechanism of the New Generation of Asian Artists*, Hiv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China
- 2020 *To Martian Anthropologists*, New Taipei City Arts Center, New Taipei, Taiwan
- 2018 *Antique*, Yiri Arts, Taipei, Taiwan
 Cruel Story of Youth, Yiri Arts, Taipei, Taiwan
- 2013 *Clues of Asia*, Long Museum Pudong, Shanghai, China
 Hidden Track, Art Experience Gallery, Hong Kong
- 2012 *Future Pass*, Today Art Museum, Beijing, China
 The Face of Time, Piaopiao Gallery, Taipei, Taiwan
 Near of Far: Group Exhibition of Young Artists, Line Gallery, Beijing, China
- 2003 *Painting*, South-North Gallery of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Process, Open Contemporary Art Center, Taipei, Taiwan

2002 *First Floor Indoor*, Open Contemporary Art Center, Taipei, Taiwan

Awards

2011 Tai Kai Award, Geisai Taiwan #3, Taiwan

2009 Tai Kai Award, Geisai Taiwan #1, Taiwan

Public Collections

Long Museum, Shanghai, China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pei, Taiwan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chung, Taiwan

Shuan-Ho Art Exhibition, Taiwan

White Rabbit Gallery, Sydney, Australia